

광산구, '에콜리안 광산CC' 인수 추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운영권 논의 고용승계 등... 7월부터 직영 계획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 전환 검토

광주시 광산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던 퍼블릭 골프장인 '에콜리안 광산CC'에 대한 운영권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광산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파크골프 동호회를 중심으로 인수 후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측과 에콜리안 광산CC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등 현재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에콜리안 광산CC는 연산동 일대 32만6822㎡ 부지에 9홀 규모로 조성된 공공 체육시설로 연회비나 회원권이 없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11년 9월 광산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각각 130억원과 137억원을 투입해 개장했다.

당시 협약을 통해 소유권은 광산구에 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31년까지 운영하면서 사

업을 회수한 뒤 운영권을 광산구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사업비 일부를 선 상환해 협약보다 6년 앞당겨 올해 7월부터 직영 전환을 목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측과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등 현재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광산구는 최근 고령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전환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골프 지역 동호인들이 일부 골프 애호가들만 이용해 왔던 광산CC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바꾸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산구 수완동에 거주하는 파크골프 동호인인 A(68)씨는 "광산구내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 외지로 원정까지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인구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파크골프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파크골프가 야외 생활체육 활동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건강증진과 삶에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청장은 "광산CC를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할 경우 108홀 규모를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돼 여성전문 파크골프장 및 다양한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전국 파크골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등 광산구를 파크골프 성지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돼 타지역 파크골프 인구까지 끌어들이 지역 경제에 효자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청장의 판단이다.

특히 파크골프장으로 변경 운영할 경우 충분히 수익이 담보돼 조성비용 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상환해야 할 금액까지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광산구의 분석이다.

광산구는 우선적으로 골프장 운영권을 인수하는데만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파크골프장 변경 운영 방침이 전해지면 협의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몇차례 협의 과정에 특별한 이유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동호인들의 요구가 높아 각 지자체 등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어 조만간 광산구도 관련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AI 맞춤형 건강관리 받으실 어르신 모셔요"

동구, 10일까지 선착순 모집

광주시 동구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지역 어르신의 건강행기기에 나선다.

5일 동구에 따르면 10일부터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 앱 '오늘 건강'과 스마트 기기(손목활동량·체중·혈압·혈당계)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들이 6개월간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모집 대상은 허약·만성질환자 등으로 건강 개선이 필요한 스마트폰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동구 주민이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1-5급)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 질환 관리

자가 측정 기기 지원 대상자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6개월간 보건소 전문가가 건강 상태에 맞춰 매일 걷기, 매일 세기 챙겨 먹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등의 건강 미션을 부여하고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건강 미션을 달성한 어르신에게는 6개월 서비스 종료 후 사용한 스마트기기와 함께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이다"면서 "어르신들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북구, 중소기업 성장·지역경제 해법 찾는다

오늘 정책 간담회·지원시책 설명회 광주테크노파크 등 17개 기관 참여

광주시 북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5일 북구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에서 17개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 및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북구 소재 중소기업 관계자와 일반 주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중소기업과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단순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을 논의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댄다는 것이 북구의 계획

이다.

또 이번 간담회에는 북구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테크노파크 등 총 17개 기관이 참여해 자금 지원, 수출 촉진, 기술 고도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한 총 93개의 주요 시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기관별 1대1 맞춤형 컨설팅 상담 창구 운영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배부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와 지원사업 수혜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국가적 평안 기원... '고싸움 놀이'로 대동세상 연다

7~9일 남구 칠석동 테마공원 달집태우기·새끼꼬기 등 진행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 놀이 테마공원에서 7일부터 '제42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열린다.

5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과 다양한 체험까지 누릴 수 있는 축제가 7일부터 9일까지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고싸움놀이 보존회에서 주관한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고싸움놀이로 여는 대동 세상, 오천만이 한마음'으로, 국가적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축제 첫날인 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대보름 '오징어게임'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화제를 모은 '등글개 등글개'를 비롯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 지치기·구슬치기' 등을 즐길 수 있다.

8일 오후 6시에는 개막식과 함께 달집태우기, 강강술래가 진행되며, 이에 앞서 외국인·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고 퍼레이드, 릴레이 새끼꼬기 대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싸움놀이 퍼레이드는 9일 오후 1



고싸움놀이보존회원들이 지난해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앞에서 '제 41회 고싸움놀이축제'를 맞아 고싸움을 시연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시부터 진행된다.

이밖에도 대보름 음식 체험, 연 날리기, 전통 민속체험, 입춘방 쓰기 등 다양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된다.

남구 관계자는 "가족과 연인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무대를 준비했다"며 "고싸움놀이 축제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서구 세큰대, '한지공예 악세사리 만들기' 진행

'우리동네 일타강사' 수강생 모집

광주시 서구가 공부하고픈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세큰대) 수강생을 모집한다.

4일 서구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세큰대 우리동네 일타강사의 두 번째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이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지공예 악세사리 만들기'로 지역 내 한지공예 전문가가 일타강사로 나서며, 서구평생학습관에서 2월 17일과 24일 2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서구민이면 누구나 '세큰대' 홈페이지 또는 "내손에 세큰대"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세큰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은 "배움나눔 프로젝트 우리동네 일타강사는 지역 주민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중한 배움과 나눔의 장이다"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움나눔 프로젝트 우리동네 일타강사는 지역 주민이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구의 평생교육 사업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향료
감미료
합성향료